



‘천원의 아침밥’ 체험하는 이개호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모교 후배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 측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전남, 양파·마늘 소비촉진 총력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등 기관·단체와 손잡고 시름에 잠긴 양파·마늘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서울시청, 광주시청, 시군, 전남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나주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승규)은 2천여 조합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에

서 ‘사랑의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 양파·마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적다. 하지만 생육 환경이 좋아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내렸다. 전남도는 각급 기관·단체와 역할을 분담하고 자체적으로 수급 안정과 관측행사를 추진한다. 양파·마늘 직거래 장터 운영, 양파와 양파즙의 온라인 특별 이벤트 행사 추진, 양파 가공업체 매입량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전남=봉태영 기자

진도군, 전남병원 인공신장실 진료 개시

만성 신부전증 환자 투석 서비스 진도읍에 위치한 전남병원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석 의료 서비스를 최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관내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총 66명으로 대부분 해남, 목포, 광주 등 타 지역 병원으로 주 3회 통원 치료 중 이다. 이에 교통비와 의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원거리의 병원 치료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진도군은 인근 타 지역 의료기

관으로 투석을 받고 다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진도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남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전남병원이 인공신장실 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63평 규모의 인공 신장실과 15대의 최신 장비를 설치했다. 신장내과 전문의 1명과 경력 전문 간호사 2명을 채용해 진료와 투석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5555knj@

장성공공도서관 ‘국어문화학교’ 운영

장성공공도서관이 올바른 국어 문화 보급을 위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한다. 국립국어원과 연계해 운영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지역주민과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올바른

국어 문화 보급을 위해 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요기관의 부담 없이 국립국어원에서 강의료 등을 전액 지원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장성공공도서관은 문장바로 쓰기 ‘언어예절’ 의사소통으로서의 말하기 등 총 3개 과정을 운영한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노하우 우즈베크에 전수... 위탁개발 시동

한-우즈베크, 20일 1차 실무회의 협의 거쳐 연내 이행협약 체결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투자유치 노하우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공동위 제1차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 뒤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와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설치할 대표사무소의 파견 인원과 처우, 조직 구성, 재정 계획, 위탁개발 규모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올해 9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릴 제2차 워킹그룹 회의 기간

에 세부합의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협의를 거쳐 12월 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맞춰 우즈베키스탄 안그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관리·운영·투자유치를 전담하는 내용의 합의(MOA)를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MOA에 따라 수도 타슈켄트에서 동남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안그렌 경제자유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2012년 지정된 안그렌 경제자유구역에는 현재 한국기업 3곳을 포함해 44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은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투자유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8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를 개설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주를 시작으로 페르가나주, 타슈켄트주, 나만간주 등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안그렌 경제자유구역 위탁개발을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 사업 분야 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에는 바이오메디컬, 첨단기술 융·복합, 첨단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135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했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등 15개 국제기구도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metroseoul.co.kr

2021 베니스비엔날레서 5·18운동 알린다

광주시장, 비엔날레 사무처장 만나 5·18 특별전 제안 등 논의 본격화

2021년 베니스비엔날레의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안드레아 델 메르카토 베니스비엔날레 사무처장을 만나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베니스비엔날레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며 2021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5·18특별전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델 메르카토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베니스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가치와 공통점이 많다”며 “내년에 차기비엔날레를 준비할 감독이 선정되면 광주시의 제안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델 메르카토 사무처장은 또 “광주를 거쳐 간 예술감독 2명이 베니스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해서 광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과 안드레아 델 메르카토 베니스 비엔날레 사무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 장점을 적극 살리면서 전문성과 예술성을 강화해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심사위원 5명 중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과 데프네 아이아스(Defne Ayas) 2020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포함되어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시장은 “광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한다”며 “내년 광주비엔날레에 베니스비엔날레 대표이사과

사무처장을 공식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면담에 앞서 10여 시간 동안 베니스비엔날레 주제전, 국가관, 특별전을 둘러보면서 광주보다 100년 앞서 시작된 베니스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며 “앞으로 광주와 베니스 간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5월, 전 세계 작가들이 참여하는 2020광주비엔날레 5·18특별전을 개최해 5·18과 광주비엔날레의 세계화를 동시에 꾀할 예정이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

울산시, 석유화학분야 인재양성 나서

공장장협의회·대학교 등과 MOU

울산시, 지역 6개 공장장협의회,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8개 기관·단체는 17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석유화학분야 산학맞춤형 인재양성 및 국제인증 교육프로그램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한 6개 단체는 울산시·울산석유화학·온산공단·용연용잠공단·여천공단·외국인투자기업

공장장협의회다.

이번 협약은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으로 석유·화학 설비운전이나 정비 분야에서 대규모 충원이 예상됨에 따라, 화학공학·기계·전기전자 등 공학계열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을 통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관·단체는 ▲석유·화학분야 산학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노력 ▲ 취업준비생 대상 현장실습과 특강

지원 ▲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 국제인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과학대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각 공장장협의회는 취업준비생 현장실습과 특강을 맡는다. 울산시는 각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 체결에 이어 시는 일자리 창출 릴레이 사업을 내실화하겠다는 다짐의 뜻을 담아 제작한 ‘일자리 바통’을 6개 공장장협의회에 전달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최인택 기자 remark@

오늘의 날씨

6월 18일 (화)
음력 : 5월 16일

수도권 날씨
27 ~ 1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0 | 해질 / 19:56

연천 15/27
 동두천 16/26
 가평 14/27
 파주 16/26
 서울 18/27
 양평 17/28
 수원 17/27
 용인 17/27
 평택 16/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